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1996년 2월 16일, 2005년 3월 18일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결의문 낭독 및 규탄 대회를 가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바,

우리 종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114번지 8호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일본 공보문화원의 자리는 옛 운현궁 터의 일부로서 운현궁은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이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장소이며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헌병 초소로 창덕궁과 운현궁의 황실의 동태를 감시하며 우리 민족의 맥을 끊으려고 하였던 곳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어떤 과정으로 이곳이 일본문화원이 자리잡았는지, 임대방식은 무엇인지 밝혀진바 없다.

그러나 임대방식을 떠나서 일제 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한 헌병초소자리를 해방 60주년이 되도록 일본의 공보문화원을 운현궁터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는 18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 및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보문화원이 현재까지 운현궁터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모두 밝혀라.

하나. 우리는 일본의 독도 및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명성황후 시해범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
한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행한 일본의 모
든 장소를 찾아내어 민족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5. 6. 1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